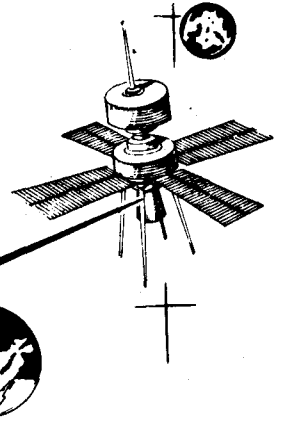


# 양계 안테나

南斗熙  
본지 편집부장



## 육계업이 변하고 있다

닭곰탕, 닭도리탕, 닭찜, 삼계탕이 주류를 이루던 닭소비가 근래에 와서 전기구이 통닭, 튀김닭, 바베큐치킨, 양념통닭 등 외식산업의 발달로 요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신장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동안 외식산업에서 주류(특히 맥주)와 더불어 소비되던 튀김닭이 술과 결별해 가정의 젊은층의(10대의 중고생, 국민학생) 폭발적인 기호성으로 닭고기 소비의 변화가 뚜렷하다.

소비자 기호가 변화함에 따라 농장의 닭생산도 과거 브로일러마리당 1.8~2.3kg이 되서 출하하던 닭이 최근 1.5~1.7kg 정도로 키워서 시장에 출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도계했을 때 1kg전후로 가장 맛이 뛰어나고 조리도 간편하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겠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입맛에 따라 닭고기 생산도, 유통도, 조리방법도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적응해 나

가야 발전할 수 있다.

양계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지난 1985년말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양계산물소비 촉진홍보사업의 닭고기 상품선전과 각 업체의 상표선전이 효율적으로 행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각종 매체에서 닭고기와 접할 기회가 많아졌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 닭고기의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어 가고 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여고생의 70%가 닭 요리중 튀김닭을 제일 즐겨 먹는다고 한다. 처음으로 TV 유명프로그램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닭고기 선전이 전파를 타고, 지방에서는 86년 이후 잠잠했다가 지난해 3월부터 5~6개 업체가 경쟁적으로 TV광고를 내고 있다. 업체간에 건전한 경쟁으로 소비신장을 금상승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내 닭고기 소비신장은 현재 수준의 2~3배가 될 전망이다.

닭고기를 더 소비시키기 위하여 기업은 고유 상표를, 협회는 닭고기의 우수한 상품성을 더욱 선전할 필요가 있다. 부화인·육계인·관련업체 모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본회 소비촉진홍보사업에 능동적인 참여를 해야 하겠다.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치킨체인점 본부는 20

개 정도 있으며 지역적인 군소체인점을 합치면 50여 개가 된다. 체인점을 많이 소유한 업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500~600개소의 체인점을 갖고 있다. 모든 체인점이 동반자적으로 성황을 이루어 닭고기 소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생산농가는 소비자요구에 의해 매장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닭을 적기에 정량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며 닭고기의 식품적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도계장은 보다 위생적으로 닭을 처리공급하여 닭고기 관련산업의 수준향상에 기여해야 하겠다. 자가 도계품 공급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도계장 관심이 새롭다.

브로일러산업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육계인들을 기대해본다.

(표) 양계농가 및 사육수수 변화

연도	사육농가(호)	지수	사육수수(수)	지수
1981	628,380	100	42,999,172	100
1982	618,463	98	46,591,640	108
1983	538,369	86	49,239,436	115
1984	367,004	58	46,483,161	108
1985	302,775	48	51,081,237	119
1986	281,736	45	56,094,807	130
1987	268,704	43	59,323,977	138
1988	194,047	31	58,466,966	136
1989*	148,665	24	57,997,852	135

\*3월말 통계(자료: 축협중앙회 조사부)

를 보이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계농가 숫자는 격감하고, 사육자는 증가폭이 완만하다. 약 10년 동안 농가수는 24%로 준데반해 사육수수는 135%로 소폭 늘고 있는데 이는 타축산업에 비해 상대

## 해외노동력 수입을 건의한다는데

농장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양계장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계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생산하는데 큰 저해요소이며 양계를 떠나는 가장 첫번째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의 사회적 전환기의 여파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작업환경이 보다 열위인 농장의 조건이 계속 악순환을 부채질한다.

종업원이 없어 계우회 등 회의 또는 기술강습회에 나오지 못하는 농장주의 숫자가 늘고 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직업소개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농장고용원에게 농장주가 면접을 보이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일부 근무조건이 좋은 농장의 스카웃도 간과할 문제는 아닌것 같다.

80년대에 들어와 양계업의 산업규모가 많은 변화



적으로 신장율이 낮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산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자료이다. 양계산업 종사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한편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업계에서는 잡역부, 미장, 목수 등의 인력확보를 위해 분당, 일산지역의 신주택건설 사업시행에 외국인력의 활동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태국,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권 인력을 혹독한 겨울날씨의 적응이나 외국인 취업이 어려운 국내 직업안정법에도 불구하고 50~70%의 급료 수준과 계약기간동안 임금인상 또는 노사분규의 위험부담을 줄여 장기적으로 생산성의 질이 높아 중동 건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의 해외인력 고용을 수입할 움직임으로 정부에 이를 건의하고 있다한다.

축산업계에서도 사회적인 영향,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등에 입각하여 연수생등 해외인력 이용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가치가 있다.

물론 농장에서는 자동화시설이나 종업원 복리후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합리적인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농장주의 끊임없는 연구노력과 인력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상설기관 등도 생각해 볼만하다 하겠다.

## 양계업 미래위원회 구성

취들이 모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위험에서 벗어날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으나 누가 방울을 썩을 것인가 논의하다 날이 새고 말았다.

5년전에, 10년전에 각종 회의에서 논의했던 얘기가 오늘도 그 구성원들만 바뀐채 3~5년 간격으로 얘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행동이 수반되지 못하는 각종 회의에서 계란값을 더 많이 받고자 하나 상인의

횡포가 그렇고, 난좌를 1회용으로 써야만 하지만 상인이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역설하고, 동업자가 손해봐야 내가 이득을 누리는 행태가 자행되는한 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

지난 30년 축산업과 관련산업을 선도해온 양계산업은 산업화후 한세대가 지난 현재 제2의 도약을 위한 산업재구성의 시련을 맞고 있다. 축산업중 유일하게 기술축적과 생산비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잠재력이 있으면서도 소명의지가 빈약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구태에 젖어 있는 양계산업이 성장산업으로 비전을 갖기 위하여 선협자들의 경험을 받아들여 5년, 10년후 국내외 여건변화를 전망·분석해 우리 산업의 발전지표를 정립하고 실현전략을 수립할 모임체가 필요하다.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만한 지혜는 없으면서 남의 의견만을 반대하는 자, 자기 사업에만 관심있는 자나 회의에서 꿀먹은 벙어리나,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이나 양계업의 발전의지나 실천의지가 없는 자 등을 과감히 제외하고 업계, 학계, 전문연구기관, 경제계 등 각계의 전문지식과 비전을 갖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천리안을 소유한 신선한 인사들로 구성된 '양계업미래위원회'를 구성하자.

성장산업인 양계산업의 미래상 정립을 위한 장기적 청사진을 설계할 모임에서는 전양계인의 의지를 결속해 제2세대 양계업을 구상, 실천해 나가자.

물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먼저 오늘이 더욱 보람있어야 하겠다. 젊은 양계인력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정부도 국가미래상 정립과 다음 세기의 장기적 청사진 설계를 위해 6월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21세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한다.

양계업의 지속적발전 전략모색을 위한 「양계업미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양계**